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생산 기업 유치 총력

올 친환경농자재 시장 6000억
최대 소비시장 강점 내세워
시설 현대화 등 지원책 마련

전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7%를 차지, 친환경농자재 최대 소비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를 나섰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원을 비롯 유기질비료

공급 247억원, 토양개량제 192억원, 유기농업자재 68억원, 왕우렁이 공급 78억원 등으로 모두 93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자재 시장 규모는 올해 약 6000억원대에 이르며, 앞으로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유치를 위해 강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우선 전남에 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과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융자, 연리 1%)과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

대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통장연합회 등 176개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제품 우선 구매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농자재 구입비의 50% 이상을 도내 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구축된 투자기업은 연구개발, 자재 우선 검증 혜택은 물론 친환경농자재 공동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남도는 농촌진흥청에 '유기농업 자재로 목록공시' 업체를 비롯 수도권 주변 대단위 개발지역으로 편입돼 이주가 필요한 업체, 전남에 친환경농자재를 대량 공급중인 우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유동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도가 친환경농자재 생산 기업의 투자 최적지임을 집중 부각시켜 우수 업체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이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을 우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신안 양산해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전남도는 지난 26일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아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 일원에서 바다환경지킴이를 비롯 유관기관 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천사대교 개통과 올 7월 신안자연휴양림, 세계조개박물관, 수석정원 개장 등으로 하계 휴가철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자은면 양산해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나섰다. <사진> 정화활동에는 전남도를 비롯 신안군, 목포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목포해양경찰청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직원, 바다환경지킴이 등 10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해양쓰레기 10여t을 수거했다. 또 목포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홍보 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마대를 참여자에게 배부하며 쓰레기 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운영주 전남도 해양환경과장은 "해양쓰레기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바다를 위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전남 바다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길 바라며,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19억원 들여
초중고생 5779명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한다

전남도내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승마산업 육성과 함께 청소년 체력 증진을 위해 전남도가 1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남도는 30일 "도내 초·중·고학생 5779명에게 19억원의 지원해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학생 승마체험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승마 인구 확대를 통한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중인 말 산업 육성사업 중 하나다. 승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텔레비전 등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키워주고, 자세교정 등의 효과가 있어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체험내용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해지는 방법, 승마예의 등 이론교육과 함께 말갈기, 말 오르내리는 방법, 승마자세, 평보, 속보 등 실습시간으로 편성됐고, 1인당 60분씩 10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인근 승마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소요비용 32만원 가운데 70%는 전남도가 지원하고 학생들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학생과 장애학생들은 전액 지원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을 지속 지원해 승마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등 전남 승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278명을 시작으로 2015년 2126명, 2017년 4268명, 2019년 5624명이 지원하는 등 참여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난 2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진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희 전남도의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협의회 회장단을 비롯 도와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기업인,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했다. <사진>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남도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소개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와 네트워크 지원, 공공구매 판로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

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들간의 상호거래, 판로확보 등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공공구매 확대, 품질 좋은 제품 생산을 통한 유통시장 확보, 민·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전남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56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선정 시·군 대상 4개 분야 공모

전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 공모로 4개 분야 56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6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지난해 대비 16개 과목에 그에 따른 2억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늘렸다.

이번 공모결과 읍면동 유류시설을 활용

해 평생교육을 제공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개소당 1000만원)에서는 '고흥, 다시 꿈꾸는 오케스트라' (어르신대상 음악 교육)를 비롯 '화산, 늘푸른 배운놀이터' (미니정원 만들기) 등 22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시·군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평생학습활성화'로는 '순천, S평생 건강리더 양성'과 '강진, 청자

비상하다' 등 17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으로는 '목포, 생태원예활동'과 함께 '장성, 희망품은 베이커리'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밖에 도민들이 인터넷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보망이 없는 7개 시·군에 정보망 구축 예산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평생교육진흥원 '남도학 첫 걸음' 강좌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학 강좌인 '남도학 첫 걸음'을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월 2일 나주 소재 광주전남연구원을 시작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도립대, 동신대 등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0차례의 이론과 답사로 운영된다.

강좌는 '남도의 자연과 문화'와 '남도의 역사, 남도의 기억'이라는 큰 주제로 남도의 시작과 미래, 남도의 멋과 맛, 역사

등으로 구성했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한국학중앙연구원과 24명의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학 교재를 제작해왔으며, 강좌를 운영할 교육기관에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남도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정체성을 정립해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남도학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여성농업인 CGV 영화관 2000원 할인

전남도내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라면 도내 CJ CGV 영화관 8곳에서 1인당 2000원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관을 운영한 CJ CGV와 전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복바우처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문화복지 업무협약으로, 전남 여성농업인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조진호 CJ CGV 영업담당, 김봉선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전국여성농업인 광주전남연합

회장, 주옥선 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복바우처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문화복지 업무협약으로, 전남 여성농업인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조진호 CJ CGV 영업담당, 김봉선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전국여성농업인 광주전남연합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상담전화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